

볼링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사랑도 키우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볼링 클럽

같은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동호인 모임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보다 화기애애하고 보다 협조적인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스포

츠 같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라면, 스트레스·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자칫 해쳐지기 쉬운 건강을 지키는데도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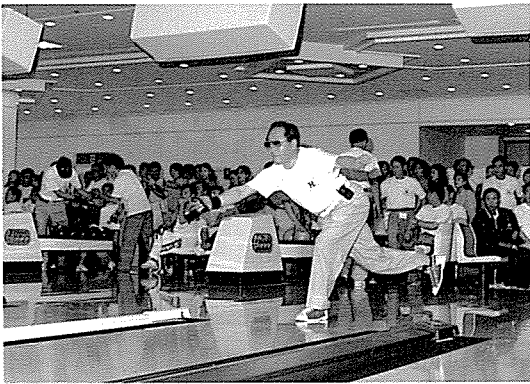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건강관리협회 볼링 클럽은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적 봉사자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인으로서, 자신과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개인으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볼링 클럽은 '94년 7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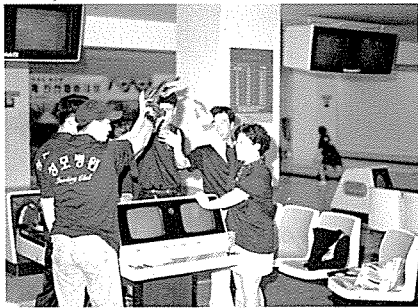
일 창단되어 올해로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그 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볼링장을 찾았었는데, 현재 볼링클럽의 고문역을 담당하고 있는 성정웅 건협 사무총장-당시 서울지부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직원간의 단결과 건강증진을 위해 볼링 동호인 모임을 본부와 서울지부가 제일 먼저 정식으로 창단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후 전국 지부로 확산되기 시작한 볼링클럽은 이제 3개 지부를 제외하고 본부와 10개 지부에 결성되어 있어, 단순한





▲ '96 직원 연수교육에서의 성정응 사무총장의 힘찬 투구



▲ 병의학 업계 친선 볼링대회에서 화이팅!



▲ 병의학업계 친선 볼링대회에서 단체전 2, 3위 차지(사진 우측이 한세희 대리)

취미생활의 차원이 아닌 “협회 지정 공식 건강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그 때문인지 클럽 회원은 아니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볼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특히 '95년 연수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직원 연수교육 시에, 협회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친선도모를 위한 회장배 전

국 지부 대항 볼링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95, '96년 모두 본부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지부의 실력도 결코 만만치는 않아서 내년의 결과가 기대된다.

성정응 사무총장은, 『그동안 우리 협회 볼링 클럽은 자체 정기전 뿐만 아니라 상주클럽 리그전, 직장·단체 친선 경기대회, 업계별 볼링 대회 등 다양한 대외적 행사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볼링 활동은, 볼링 동호인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회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협인 간의 친목도모와 업무수행 시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이루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

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국민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관리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건협 볼링클럽 운영의 효과를 설명한다.

건협 볼링 클럽의 창단 멤버인 성총장의 볼링 실력은 웬만한 젊은 사람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준급이며, 고문으로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클럽운영을 위한 조언과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총장은 볼링의 사회적 확산에도 관심을 가져, 한국사회체육볼링연합회 창립 발기인으로 창립 총회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현재 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건협의 볼링클럽은 왕성한 활동 만큼이나 각종 대회에서의 성적도 아주 우수하다. 클럽 창단 전인 '93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는 전국 업계별 경기 중 병의학업계 볼링대회에서는 첫해인 '93년에 3위, '94년과 '95년에 1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향한 경기를 치르고 있다.

현재 건협 볼링클럽 본부 및 서울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한세희 대리는, 『건협 볼링클럽은 실력이나 성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 지부에 볼링클럽이 결성되어 있으니 순회 친선경기를 자주 가져 직원들 간의 대화와 정보교환의 기회, 그리고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협회 홍보 및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회 내에 볼링의 저변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니까 앞으로 전국 규모의 대외 경기에는 대표선수를 구성하여 출전하도록 해서 기왕이면 좋은 성적도 거두고 협회의 홍보와 위상 정립에도 한몫하도록 해야지요.』라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볼링클럽의 향후 계획을 다부지게 밝혔다. 72